

외국어[영어] 영역

정답

- | | | | | |
|-------|-------|-------|-------|-------|
| 1. ③ | 2. ⑤ | 3. ② | 4. ④ | 5. ③ |
| 6. ③ | 7. ④ | 8. ① | 9. ① | 10. ④ |
| 11. ④ | 12. ⑤ | 13. ④ | 14. ④ | 15. ① |
| 16. ① | 17. ② | 18. ① | 19. ② | 20. ④ |
| 21. ② | 22. ⑤ | 23. ③ | 24. ⑤ | 25. ③ |
| 26. ② | 27. ④ | 28. ② | 29. ② | 30. ③ |
| 31. ① | 32. ① | 33. ⑤ | 34. ② | 35. ④ |
| 36. ③ | 37. ⑤ | 38. ③ | 39. ③ | 40. ⑤ |
| 41. ⑤ | 42. ② | 43. ⑤ | 44. ④ | 45. ① |
| 46. ⑤ | 47. ② | 48. ⑤ | 49. ① | 50. ① |

출제경향

2009년도 6월 모의 평가원 시험은 전체적으로 평이하게 출제되었으며 새로운 유형의 문제도 없었다. 다만 49~50번 문제에서 몇 년 전 출제되었던 공통 주제 추론 유형의 문제가 다시 등장하였다. 2008학년도 대수능과 비교해서 난이도의 차이도 크게 없었다. 어휘의 수준도 평이하였고 일부 지문이 해석이 까다로운 경우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는 이해에 큰 어려움이 없었다. 지문의 앞뒤 부분 몇 줄만 읽고 쉽게 답을 낼 수 있는 문제가 여전히 눈에 띄었으나 대부분은 전체를 읽어야 답을 확신할 수 있는 문제였다. 일부 지문들은 상황 파악이 쉽지 않은 것도 있었으며, 지문 소재 면에서는 쓰나미, 유료화 문제 등 시사적인 내용도 일부 등장했다. 최근에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는 빈칸 추론 유형이 여전히 강세를 보이면서 변별력 있는 문제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 추세이다.

출제문항분석

특기

지난해 6월, 9월 평가원 시험이나 수학 능력 시험에 비해 매우 낮은 난이도의 문제들이 제시되었다. 정답을 알 수 있는 결정적인 정보들이 대화의 초반부에 대부분 제시되고 있으며, 별다른 반전도 없기 때문에 문제의 전반적인 난이도는 매우 낮은 편이다.

독해

독해 부분에서는 49~50번 문제를 제외하고는 작년 대수능과 동일한 유형의 문제가 출제되었다.

[어법] 어법 문제는 고차원적인 문법 지식을 묻기보다는 일상적으로 많이 쓰이는 표현을 정확히 구사할 수 있는가에 중점을 맞추어 출제되었다. 21번 문제는 주어와 동사의 수의 일치, however와 whatever의 쓰임의 차이, 현재분사와 과거분사의 구별 등을 다루고 있다. 22번 문제는 병렬 구조, 수식어의 꾸밈을 받아서 관계사와 떨어져 있는 선행사와 관계사를 일치시키는 문제였다. 어법 문제가 변별력을 지닌 문항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최근의 경향을 그대로 보여 주고 있다.

[빈칸 추론] 25번 문항은 비교적 평이했으나 26번과 27번 문항은 어려움을 느꼈을 학생들이 많았으리라 생각된다. 특히 27번은 첫 부분에서 상황 파악에 실패하면 이후 내용을 통해 방향을 잡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또한 빈칸의 위치가 중반부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단서가 바로 앞 문장에 배치되어 있어서 체감 난이도를 더 높였으리라 추측된다.

[어휘] 어휘 문제의 경우 28번은 어휘 자체의 난이도는 높지 않고 반의어 위주로 짝을 이루고 있어서 문맥을 통한 상황 파악이 문제 풀이의 핵심 요인이었다. 29번의 경우도 답이 되는 부분이 그림에서 바로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3점 문항이었지만 오답률은 높지 않으리라 예상된다.

[글의 순서] 글의 순서를 정하는 44번, 46번 문제는 지시어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주로 내용이나 이야기 전개에 논리적, 시간적 순서에 대한 이해를 요하는 문제였다. 44번은 가정법이 나타내는 때에 대한 문법적 지식이 필요했고, 46번은 글의 첫 문단이 전형적인 글의 시작으로 여겨지는 형태를 띠고 있지 않아서 약간의 어려움을 겪었으리라 예상된다.

[공통 주제 찾기] 한동안 등장하지 않았던 공통 주제 찾기 유형이 대립된 의견 문제 유형 대신 등장했다. 소재가 아이들을 이동시키는 내용이어서

수험생들에게는 다소 생소하게 느껴져 문제 해결에 다소 어려움이 있으리라 예측된다.

 해 | 설 |

1. 여자는 돛형 텐트를 구입하고 싶어 하지만, 남자는 텐트를 치기가 복잡해 보여 차라리 삼각형에 그늘 차양이 없고 등근 창문이 달린 텐트를 구입하고 싶어 한다. 여자도 남자의 의견에 결국 동의하였으므로, 정답은 ③이다.
2. 택시에서 내렸으나 잘못된 장소라는 것을 알게 된 남자는 택시를 다시 타기도 싫고 발이 아파 걷기도 싫은 상황이다. 이런 남자의 심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⑤이다
3. 예전에는 공과금을 내러 직접 가야했으나 이제는 자동 이체 덕분에 연체 걱정도 없고, 번거롭게 은행에 돈을 내러 갈 필요도 없으며, 할인까지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으므로, 자동 이체의 장점에 대한 언급임을 알 수 있다.
4. 회의 중이라 연락을 못하고 있을지도 모르니 문자를 보내보라는 여자의 말에, 남자는 바로 Tim에게 문자를 보내기로 하였으므로, 정답은 ④이다.
5. 여자는 친구 결혼식 참석차 6월 3일부터 동경을 방문할 예정이며, 6월 4일부터 돌아올 날까지 휴대 전화를 정지시킬 예정이다. 결혼식 참석 후에 베이징에서 회의와 관광을 한 후 6월 24일에 돌아온다고 하고 있으며 그 다음날 휴대 전화 정지를 풀 예정이므로 총 3주간 휴대 전화 서비스를 중단할 예정이다.
6. 웹사이트 방문이 감소하다보니, 온라인 판매가 감소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리서치도 하고 웹사이트 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남자가 하는 말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③이다.
7. 음악이 맘에 들지 않아 남자에게 다른 음악을 추천해 줄 것을 부탁하고 있으므로, ④가 정답으로 가장 적절하다.
8. 여자는 남자 덕분에 점수를 잘 받았고, 이번 숙제는 남자의 직업에 대해서 조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학생’일 것이며, 남자는 동물들을 돌보는 것과 방문객들에게 동물들을 보여 주는 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으므로 ‘동물 사육사’일 것이다.
9. 다양한 종류의 책이 있으며, 모두 중고 책이라고

하고 있으므로 둘이 대화하는 장소는 중고 서점일 것이다.

10. 담배 연기 때문에 갑자기 기침을 하는 여자를 위해, 흡연자들에게 자리를 옮겨달라고 말하겠다고 하였으므로 정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④이다.
11. 여자는 같은 감독의 다른 작품 대신 자신이 주문한 DVD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④는 대화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내용이다.
12. 서류 제출은 이메일로 받았다고 하고 있으므로, ⑤는 광고의 내용과는 다른 내용이다.
13. 소화기 사용법에 대하여 배우고 있는 내용이 그림의 내용으로 가장 적합하다 할 수 있다.
14. 여행 관련 핸드아웃을 직접 제작하려 하는데, 어떻게 하면 학생들에게 흥미로운 것으로 만들지에 관해 고민하는 남자에게 여자가 할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④이다.
15. 연습 때문에 표를 팔지 못하고 있는 여자가 남자에게 표를 팔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을 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남자의 대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이다.
16. 남자의 팬이라는 여자에게 아직 그녀가 읽어보지 못한 신작을 남자가 선물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여자의 대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이다.
17. 승부에 상관없이 모두 함께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힘들어하는 Claire에게 Tom이 할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힘내라는 이야기이다.
18. 조선 시대 학자나 지식인을 일컫는 말로서, 유교 사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들을 추론하는 문제이다. 선택지 상에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함정이 제시되고 있지 않으며, 지문 자체의 난이도도 낮은 편이기 때문에 ‘Confucianism’이나 ‘Confucian’이라는 어휘의 정확한 의미를 알고 있지 못해도 정답을 찾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는 문제이다.
19. ①, ③, ④, ⑤는 모두 Greg를 지칭하고 있으나, ②의 ‘he’는 Greg의 아버지를 가리키고 있다. 전통적으로 평이한 난이도의 문제 유형으로, 전체 어휘 수준이나 문장 구성 그리고 지문 내용 자체가 어렵지 않게 제시되고 있다.
20. 세계 각국의 음식을 맛볼 수 있다는 사실 외에도, 다양한 나라의 식사 예절을 예시로 들면서, 그 식사 예절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 글 전체의 내용이므로 이 글을 쓴 목적은 “식사 문화 체험 행

사”에 대해 알리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21. (A) 문장의 주어가 ‘one’이므로, 동사는 단수를 표시할 수 있는 ‘was’가 쓰여야 한다.

(B) ‘의문사+ever’절 자체가 명사절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타동사 put의 목적어로 쓰일 수 있다. 선택지 뒷부분에 ‘liked’의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으며, 이 목적어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간에’라는 의미의 ‘whatever’이다.

(C) ‘something’이 무엇인가를 나에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것’이라는 의미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어진 선택지에서는 ‘done’이 적절하다.

22. 선택지 ①의 경우 ‘pumping’이 ‘stopped’의 목적어로 쓰인 것을 확인하라는 의미이며, 선택지 ②는 ‘종업원이 유리 부스 안에 들어가 있다’는 의미로 사용되기 위해 수동 형태인 ‘be enclosed’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묻고 있다. 선택지 ③은 등위접속 관계로써 must 뒤에 get과 pump, walk가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야 하는 내용이며, 선택지 ④는 의미상 보어가 아니라 부사가 쓰여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 묻고 있는 내용이다. 선택지 ⑤의 경우, 선행사가 ‘a uniform’이 아닌 ‘a teenager’이므로 사물을 나타내는 관계 대명사 ‘which’ 대신에 사람을 나타내는 관계 대명사 ‘who’가 쓰여야 한다.

23. 글의 도입문에서 사람 간의 접촉, 즉 ‘사회성’과 면역 체계 간의 연관성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다. 다른 문장들은 모두 도입문과의 연계성을 나타내고 있으나, 문장 ③의 경우 ‘표본 획득의 어려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서 도입문과의 연관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글의 전체 흐름과 관계가 없는 문장이라고 할 수 있다.

24. 청중들을 현혹시키는 데 필요한 요소를 파악하기 위해 실험을 한 결과, 마술사의 움직임의 속도나 정확성보다는, 사람들의 생각을 사로잡는 ‘technique of suggestion’이 중요한 역할이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주어진 빈칸 부분에는 ‘psychological’이라는 표현이 적절하다.

25. ‘전통 사회에서는 개인의 노력이나 성취도에 의해 스스로의 신분을 변화시킨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글의 도입부에서 제시한 뒤, 현대 사회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변화시키려 해왔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현대 사회는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불변의 정체성에 의존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가장 적절하다.

26. 시험의 전체적 난이도에 비해서 까다로운 난이도의 문제이다. 글쓴이는 ‘FW Whole Foods’에서 쇼

핑하는 것을 서점에서 책을 고르는 것에 비유하고 있다. ‘일상적 사물을 다양한 표현으로 나타내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내용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빈칸에 선택지 ②가 가장 적절하다. 또한 빈칸 뒤의 ‘Indeed’라는 표현을 통해서 뒷부분에 제시되는 내용과 빈칸에 제시되는 내용이 서로 같은 맥락이어야 하기 때문에 ④ competitive activity 같은 선택지는 정답이 될 수 없다.

27. 빈칸의 내용은 앞에 언급된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 되어야 하므로, 인간이 유전적으로 인종 차별적인 태도를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면서 주변 환경으로부터 학습한다는 내용이 되어야 한다. 빈칸 뒷부분의 내용은 빈칸에 덧붙인 내용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빈칸의 내용과는 약간 다른 것이 되어야 한다. 또한, 마지막 부분의 내용을 볼 때 빈칸의 내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28. (A) fast-food industry를 ‘거대 기업이 지배하는 식품 경제로의 발걸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므로 이 산업이 ‘새롭게 생겨나고(emerging)’ 있다고 해야 적절하다.

(B) fast-food industry가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으므로 다른 산업도 이 방법을 ‘채택했다(adopt)’고 해야 적절하다.

(C) 선택지 앞에 ‘wiping out small business (중소 업체를 없앤다)’와 and로 연결되고 있으므로 eliminating이 적절하다.

29. 그림을 보고 어휘의 올바른 쓰임을 판단하는 문제는 먼저 그 어휘가 포함된 문장의 내용이 그림의 어떤 부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그리고 밑줄 친 어휘와 상대적인 의미를 지닌 단어를 떠올리며 그림과 비교하면 된다. 따라서 ②의 ‘head’를 보면 ‘bottom’ 정도를 떠올리며 그림과 비교하고 ③의 ‘move into’를 보면 ‘move out of’ 정도를 떠올리며 그림과 비교한다. ②에서 ‘head’에서 ‘thread’까지의 거리를 지칭하는 용어는 그림에 따로 나오지 않고, ‘pitch’라는 용어는 ‘thread’에서 ‘thread’까지의 거리를 가리킨다.

30. 심경의 변화에 관한 문제는 먼저 지문의 앞부분에서 등장인물이나 상황의 분위기를 파악하고 난 후에 반대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지문을 읽어내려 가면 된다. Jonathan이 어떤 여성을 반복해서 부르며 자신의 ‘뒷마당(backyard)’에서 나가라고 하는데 그 여성이 자신을 ‘알아보지(acknowledge)’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므로 Jonathan이 처음에 느끼는 심정은 ‘짜증스럽다(annoyed)’라고 해야 할 것이고, 마지막 부분을 보면 그 여성의 웃는 모습에 ‘매혹되는

(fascinated) 반대 상황으로 마무리되고 있다.

31. 연결사 문제는 연결사 앞뒤 문장의 핵심적인 내용을 간추려 정리하고 그 두 가지 내용의 논리적 연관 관계를 따져본다. 이때 전체적으로 앞, 뒤의 내용이 먼저 순접인지 역접 관계인지부터 시작해서 연결사의 용법을 떠올리며 문장 내용을 비교한다. (A)의 앞 문장은 ‘큰 꿈을 실현할 다음 기회를 찾는다.’는 주제문에 대해 ‘a cab driver in Manhattan(맨하탄의 택시 기사)’라는 구체적인 예시 문장이 되고 있고, 연결사 다음 문장의 ‘a waitress in California’ 역시 또 다른 예시의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같은 주제에 해당하는 사례를 나열할 때 쓰는 연결사를 고르면 된다. (B)는 앞 문장의 내용이 ‘꿈을 향해서 간다는 생각이 그들에게 중요하다.’이고 다음 문장은 ‘행동하지 않는 사람은 인생의 비참함을 느낀다.’이므로 서로 역접 관계로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A)에는 Likewise, (B)에는 On the other hand가 정답이다.
32. 지문 넷째 줄이 주제문에 해당한다. “음악의 선택이 중요한 사회적 결과를 끼친다.”는 내용 다음에 우리의 사회적 정체성을 찾는 방식의 하나로 같은 음악을 듣는다는 내용이 나온다. 즉, 음악과 사회적 정체성 형성과의 관계가 이 글의 주제라 할 수 있다.
33. 두 번째 줄의 의문문이 이 글 전체의 주제를 도입하고 있다. “왜 청소년들이 취미로 뜨개질을 시작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설명이 나열되는 형태로 지문이 구성되어 있으므로 이 글의 주제는 ‘뜨개질이 청소년에게 인기 있는 이유’라고 할 수 있다.
34. 지문의 앞부분에 자신은 다른 사람보다 힘든 상황에서 좀더 ‘인내하며(persist)’, 이것이 자신의 성공한 이유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지문의 마지막 부분에서 실패했을 때 거기서 좌절하지 말고 경험으로 받아들여 새로운 도전을 하라고 나와 있으므로 실패하더라도 끝까지 인내하며 다시 도전하라는 것이 이 글의 주장이라 할 수 있다.
35. 도표 문제에서는 선택지 문장과 도표를 비교하며 도표의 각 항목과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①에서 seed cost를 항목을 찾아 보면 모두 화살표가 위를 향하고 있으므로 ‘seed cost가 증가했다’가 맞다. ②에서 profit 항목을 보면 화살표가 많이 올라간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가 있으므로 ‘profit 비율이 다양하다’가 맞다. ③에서 아르헨티나가 seed cost 항목에서 가장 높이 화살표가 올라가 있으므로 ‘아르헨티나의 기존 식품에 대한 유전자 변

형 식품의 seed cost가 가장 높다’가 맞다. ⑤에서 yield 항목을 보면 멕시코의 화살표가 가장 낮게 나와 있으므로 ‘멕시코의 생산량 증가율이 가장 낮다’가 맞다. ④에서 남아프리카의 이윤 증가율은 299%이고 중국의 이윤 증가율은 340%이므로 중국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남아프리카라고 해야 한다.

36. 원시 부족들의 언어에 관한 글이다.
- ① 어휘가 부족한 듯이 보이지만 자기 표현에 필요한 어휘들은 그렇지 않다.
- ② 과학과 기술 관련 어휘가 영어만큼 풍부하지는 않다.
- ③ ‘their words for tools, animals, plants, and other everyday things run into the thousands’를 그대로 번역하면 ③이 정답이다.
- ④ Navaho Indians을 위해 쓰인 사진이 존재하며 여기에 11,000개의 단어가 실려 있다.
- ⑤ 마야 인디언의 어휘 수가 20,000개로 가장 많다.
37. ⑤ ‘He never attempted a novel, because his genius was best expressed through the shorter forms of literature.[그(Borges)는 소설을 시도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의 재능은 단편 형태를 통해 가장 잘 표현되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novel(소설)’은 ‘shorter forms of literature(단편)’과 비교되고 있으므로 장편 소설의 의미로 쓰인 것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장편 소설은 국제적인 명성을 얻었다’가 지문과 일치하지 않는다.
38. 첫 번째 문장에서 유로화에 대한 의구심이 그리스에서 여러 가지 오해를 낳았다는 내용을 제시하고 그 다음부터 그 오해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유로화가 그리스의 생활비 상승을 초래했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유로화 때문이 아니라 유로화 이전의 인플레이션 때문이다. 따라서 ‘그리스의 물가 상승은 유로화 도입보다는 시장 왜곡 때문이다.’가 이 글의 요지이다.
39. 셋째 줄부터가 이 글의 주제문이다. ‘the ability to self-regulate was more important than intelligence for early academic success.’를 그대로 번역하면 ③이 정답이다.
40. 이 글의 구성은 시간 순서에 따른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전반부에는 Charley Kline이 컴퓨터 간의 통신을 위해 최초로 컴퓨터와 컴퓨터를 연결했다는 내용이 전개되고 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은, 한 컴퓨터에서 다른 컴퓨터로 “login”이라는 글자를 전송하는 과정에서 “l”과 “o”를 전송하는 데는 성공했으나 글자 “g”를

전송하기 위해 “g”를 입력하자, ‘그것은 그 초보 시스템이 흡수하기에는 너무 큰 부담이어서, 컴퓨터가 다운되었고 결국 연결이 끊어졌고’, 그 후 다시 재빨리 연결이 복구되어 시스템이 안정되어 많은 사람이 그 시스템에 참여했다는 내용이 이어진다. 주어진 문장인 “However, that was too much for ~”에서 “that”은 ⑤의 바로 앞의 내용인 ‘글자 “g”를 전송하는 것’을 가리킨다. 따라서 주어진 문장은 ⑤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41. 이 글은 ‘(아직 지적 능력이 성숙하지 않아 원리에 대한 체계적인 설명을 이해할 능력이 없는) 아이들에게는 그들의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고 그 의도에 부합하는 대답을 하는 것이 아이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필자는 유아 교육 전문가의 예를 들어서 아이들은 어떤 현상의 원리보다는 목적에 더 관심이 있으므로, 현상의 원리보다는 목적을 설명해 주는 것이 아이들에게 더 유용하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글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적절한 제목은 ⑤의 ‘아이들의 질문에 적절히 대답하는 방법’이다.
42. 이 글의 전반부는 유리잔 위의 공기층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어서 좋은 유리잔은 이러한 공기층을 무질서하게 혼합시키지 않는다는 내용이 이어진다. 그리고 ‘너무 작은 잔은 와인의 향기를 응집시키기에 좋지 않음’을, 오케스트라에 너무 가까이 있는 좌석에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다. 후반부에서는 좋은 와인 잔은 와인 자체를 변화시키진 않지만, 와인의 향기와 맛이 나는 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고, 와인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이 전개되는 바, 이 글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적절한 제목은 ②의 ‘와인에 맞는 적절한 와인 잔’이다.
43. 이 글의 필자는 농기계 소리도 조용해진 어느 한적한 곳에서 ‘닭, 칠면조, 새의 소리’를 들면서, ‘소가 풀을 뜯고, 닭이 목초지를 돌아다니는 것’을 보고 있다, 필자는 ‘남은 오후 내내 이러한 봄의 목초지의 풍경을 계속 찬미하며 즐길 수 없음’을 안타까워하지만, 자신의 앞에, ‘느긋한 동물들이 점점이 박혀 있는 목초지와 그 뒤의 숲, 그리고 그 숲을 굽이굽이 흐르고 있는 시냇물’이 어우러져 있는 ‘최고로 아름다운 시골 풍경이 펼쳐져 있음’을 알게 된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 봤을 때 이 글의 분위기는 ⑤의 ‘목가적이고 평화로운’ 분위기가 적절하다.
44. 주어진 글에는, ‘2004년도의 인도양에서 발생한 쓰나미에 대한 대비책이 없었다는 사실 중 가장 가

슴 아픈 일은, (쓰나미의 발생 직후) 최초로 바닷물이 뒤로 빠지자, 고기를 잡기 위해 해변으로 뛰어들었던 아이들의 열성이었다.’는 내용이 서술되고 있다. 그 뒤에 서술되는 내용은, (C)의 “Those ill-fated children ~”가 주어진 문장의 ‘해변으로 뛰어들었던 아이들’을 가리키므로, (C)의 ‘그 아이들과 다른 사람들은, (이미 그들의 기억에서 잊혀진) 1883년 발생한 쓰나미를 제외하곤, (쓰나미를 겪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쓰나미의 징조인 바닷물의 후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다’는 내용이 이어진다. 그리고 1883년 쓰나미 재해 후에 쓰나미 경고 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을 다룬 (A)의 내용이 이어진 후, 만약 그러한 쓰나미 경고 시스템이 2004년 쓰나미 발생 시에도 있었다면, 진앙의 중심에서 비교적 멀리 떨어진 사람들은 구할 수 있었을 지도 모른다는 (B)의 내용이 전개된다. 참고로 (B)의 “such system ~”은 (A)에서 전문가들이 도입을 주장한 “a tsunami warning system”을 가리킨다. 따라서 정답은 ④의 (C)-(A)-(B)이다.

45. 이 글에서 Charles Wilson이라는 사람은 “큰 회사를 이끄는 수장으로서의 경험을 작은 회사에 어떤 식으로 적용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받은 후, 그가 어렸을 때 우유 판매점에서 우유를 채우는 일을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회사 경영에 관해서도 이를 적용할 수 있다는 답변을 하고 있다. 그는 우유팩의 크기가 어떻든지 간에 우유의 가장 좋은 부분인 크림이 항상 우유의 최상단부에 오는 것처럼, 회사의 크기가 어떻든지 간에 부단히 배우려는 자세와 열린 사고, 미래에 대한 인식 등을 통해서 당신의 회사를 최고의 위치에 있게 하라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회사의 크기(size)에 관계없이, 자기 자신을 개발(improving)하는 것에 의해 누구든 최고가 될 수 있다.”가 적절하다.
46. 초반부에는 ‘주인공이 친구와 싸운 후, 체육 선생님의 의해 발각되어서 그 별로 주인공과 다룬 친구가 서로 손을 잡고 운동장을 돌게 된 일’을 서술하고 있는 (C)가 위치하는 것이 적절하고, (C)에 이어 ‘주인공과 친구를 분노하게 하는 그런 강제적인 운동장 달리를 하는 도중에 문득 주인공이 그의 옆에서 힘겨워 하는 친구를 바라보면서, 그 친구 또한 자신과 다를 바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며 좋은 친구 사이가 되었다.’는 내용의 (B)가 오는 것이 자연스럽다. 마지막 부분에는 (B)에서 새롭게 인식한 것을 바탕으로, ‘예전에는 정말로 싫어했던 그 친구를 이후에는, 나와 같이 외면을 뛰어 넘는 내면의 가치를 지닌 인간 존재라는 생각으로 그 친

구를 보게 되었고, 남은 평생 동안 싸움을 하지 않았다.’는 (A)의 내용이 이어진다. 따라서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⑤의 (C)-(B)-(A)이다.

47. (a)의 “the big figure”, (c)의 “the large person”, (d)의 “my unwilling partner”, 그리고 (e)의 “my enemy”는 모두 주인공과 싸운 친구인 Matt를 가리키는데 반해, (b)의 “another person”은, ‘Matt와의 싸움 이후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해서 주인공이 함부로 손을 대지 않은 다른 사람들’을 가리킨다. 따라서 ②가 정답이다.

48. 주인공은 친구와 싸우고 그에 대한 별로 운동장돌기를 하면서 ‘자신 이외의 인간 존재들도 자신과 같이 내적 가치를 지닌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러한 글의 내용을 통해 봤을 때, 이 글이 시사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상대방의 내적 가치를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⑤이다.

49. (A)는 ‘당신이 자녀들을 날마다 학교에 데려다 줄 수 없는 경우에는, 학부모들끼리 순번을 정해서 아이들을 감독하면서, 한꺼번에 도보로 학교에 데려다 주는 것이 효과적이다.’라는 내용이고, (B)는 ‘당신이 동시에 자녀들을 어딘가로 데려다 줘야 하는 상황에서 만약 그럴 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 부모들과 조정해서 협력하면 아이들을 효과적으로 적재적소에 데려다 줄 수 있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A)와 (B)의 공통된 주제는 ①의 ‘아이들을 이곳저곳에 데려다 줄 수 있는 협동 방식’이 적절하다.

50. (A)처럼 ‘아이들이 도보로 학교에 등교’를 하게 되고, (B)처럼 ‘매주 자기와 다른 학부모들, 즉 여러 대의 차로 그들 각각의 자녀를 차에 태워 이동’하는 것보다, ‘매주 번갈아 가면서 한 명의 부모가 한 대의 차로 자기의 자녀와 다른 부모의 자녀를 같이 차에 태워 이동’하게 되면, 공통적으로는 ①의 교통량(traffic)이 감소하게 될 것이다.